부영그룹,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원 기부

부영그룹이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공군 하늘 사랑 장학재단에 기부금 100억원을 전달했다. 〈사진〉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은 지난 1일 공군호텔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기부금을 전달하고 공군 유가족들의 생활지원금 및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창업주 이중근 회장의 뜻을 전했다.

하늘 사랑 장학재단은 훈련 중 순직한 공군 조종사 유자녀들이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간직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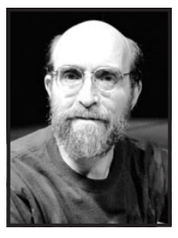
공군 출신인 이중근 회장은 1961년 입대 당시 186cm 장신이라는 이유로 항공병학교에서 불합격이 언급되기도했었다. 이후 군생활 5년 반 동안 매끼 식사 2인분을 제공받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이 회장은 그 밥값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공군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이중근 회장은 공군 예비역 모임인 로카피스 회장을 맡아 예비역과 현역 간 가교 역할도 해 오고 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조종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한다"며 "유자녀들이 부모님의 애국정신에 자긍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영그룹은 1997년 육군 25사단을 시작으로 육군 1군단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헌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 서울용산전쟁기념관에 참전용사비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6·25재단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후원금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



1980~1990년대 평온과 휴식을 주는 음악으로 한국에서도 사랑 받아온 세계적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별세했다. 향년 73세.

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윈스턴의 유가족은 윈스턴이 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알렸다.

가족들은 윈스턴이 10년간 암 투병을 했고, 수면 중에 고통 없이 조용하게 영면에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희귀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을 진단받고서 지난 2013년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다.

가족들은 추모 글에서 "조지는 암 치료 중에도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고 녹음했으며 그의 열정에 충실한 채로 남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기아극복 기금 마련을 위해 라이브 연주를 지속하고 콘서트 수익금은 모두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했다고 유족들은 그의 생전 마지막 몇 년간의 활동을 전했다.

스스로를 '자연주의 피아니스트'로 칭하는 윈스턴은 민요, 블루스, 재즈 음악에 자기 고향인 미국 서부 몬태나의 대자연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불어넣어 깨끗하고 서정적인 음색의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왔다.

1994년 작 '포레스트'로 그래미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상을 받았으며 이 앨범을 비롯해 '서머'(Summer), '플레인스'(Plains) 등 6개의 앨범이 빌보드 차트 뉴에이지 부문 1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서정적인 멜로디의 피아노곡 '쌩스기빙'(Thanksgiving), '요한 파헬벨의 캐논 변주곡' 등이 수록된 '디셈버'(1982)는 국내에서만 100만 장이 넘게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그는 그간 10여 차례 내한 공연을 했으며 1999년작인 '플레인스' 앨범에 보너스 트랙으로 '아리랑'을 연주해 수록하는 등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영광군에 생활용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단장 이창민)은 7일 영광군 내 취약계층에 15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및 지역특산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전남지역협력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 재원으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제공〉

박진영, NBA 해설 맡는다 챔피언결정전 4차전 중계

가수 박진영〈사진〉이 미국 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 4차전 TV 중계 객원 해설을 맡았다.

SPOTV는 "박진영이 10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는 덴버 너기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2022-2023시즌 NBA 챔피언결정전 4차전 중계 스페셜 게스트로 나온다"고 7일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이기도 한 박진영은 유명한 농구 팬으로 예전에도 NBA 중계 객원 해설을 맡은 바 있다.

박진영이 객원 해설을 맡은 NBA 챔피언결정전 4차전 경기는 스포티비 온, 스포티비 나우에서 방송된다. /연합뉴스

한국콘진원, 지역민 생활 환경 개선 벽화공헌 활동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지역 마을의 낙후된 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나주시 다시면 월천마을에서 '함께 그려요 아름다운 마을 벽화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제공〉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00 진짜가 나타났다(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낭만닥터 김사부 3(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00 뉴스브리핑
3	00 상상꾸러기 꾸다 2 1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불편해도 괜찮아 4 50 만담 다큐 호수인	00 KBS 뉴스타임 10 인앱(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시크릿 쥬쥬 베스트프렌즈 2 15 프라몬 원정대 30 놓친 예능 따라잡기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특집 바이시클 로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비밀의 여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홍김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세컨 하우스 2	00 다큐 M	00 관계자 외 출입금지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00 방과 후 설렘 시즌2 소년판타지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영상앨범 산(재)			
12	00 KBS 중계석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2 미리보기 15 특집 문화콘서트 난장 IN ACC	0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시몽
07:15 하프와 친구들
0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7:45 엄마 까투리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08:5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명의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17:20 타타와 쿠마
17:25 뽀롱뽀롱 뽀로로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18:1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8:40 EBS 뉴스
19:00 한국의 둘레길
19:20 고향민국
19:50 숲이 그린 집(재)
20:40 세계테마기행 〈상상 그 이상, 아이슬란드 -신화가 된 풍경〉
21:30 한국기행 〈새참 왔어요 4부 101세 어머니와 들밥〉
21:55 다큐멘터리K
22:50 귀하신 몸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8일 (음 4월 20일 丁酉)

☎ 010-9790-8237

子 36년생 전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이 유용하다. 48년생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60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에 충실해야만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72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보라. 84년생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하느니라. 96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02, 90

丑 37년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49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즉시 조처하는 것이 합당한 결과를 부른다. 61년생 남 좋을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73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85년생 건너짚었다가는 망신당하는 수가 있다. 97년생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7, 70

寅 38년생 모두 차치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50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62년생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버려도 된다. 74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86년생 철저한 정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98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1, 53

卯 39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하다. 51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63년생 중차대한 것에 신경 쓰다가 종 된 것에 소홀히 할 수다. 75년생 평온한 가운데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날이다. 87년생 생각지 못했던 점이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길한 작용을 하게 된다. 99년생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00, 82

辰 40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52년생 지켜보고만 있을 정황이 아니니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64년생 이익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리라. 76년생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 보는 것이 지혜롭다. 88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00년생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1, 79

巳 41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53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65년생 대상을 잘 선정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77년생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어지럽겠다. 89년생 진행 과정이 충실했다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깔끔해야 성사되리라. 01년생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9, 96

午 42년생 쾌도난마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54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66년생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니 놓치지 말자. 78년생 길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확연해진다. 90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02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05, 80

未 43년생 실행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55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모순이다. 67년생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신선함을 시도하자. 79년생 쓸모가 없으니 체념은 빠를수록 유익하다. 91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을 가지고 괜히 손대어서 역효과를 보게 된다. 03년생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06, 54

申 44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리라. 56년생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80년생 길성의 기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92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04년생 심기일전한다면 활기찬 미래를 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52

酉 45년생 엄격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57년생 근린 관계의 협조 체제가 절실하다. 69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는 관계이다. 81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93년생 고비를 넘기고 나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05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71

戌 34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겉돌 수밖에 없다. 46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70년생 진중하다 보면 점진적인 발전을 이끌 것임이 틀림없다. 82년생 첨예한 관심사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94년생 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42, 89

亥 35년생 조심성을 잃지 않아야만 위험을 비껴갈 수 있느니라. 47년생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환경이다. 59년생 줏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해나감이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71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83년생 제대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95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64